

Bump Up!: Read, Think & Speak!_ Book 3_ Translations

Unit 1 The Gift of the Magi

Before You Read

때때로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출간할 때 가짜 이름을 사용하곤 한다. 유명한 미국 작가 오 헨리는 실제로는 윌리엄 시드니 포터였다. 포터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성공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재치있는 대화와 반전 있는 결말을 지닌 오 헨리의 단편 소설들은 매우 성공을 거두었다. <동방박사의 선물>은 그 중 하나이다. 제목의 '동방박사'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세 명의 현인들을 나타낸다.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기에 '동방박사의 선물'은 매우 소중한 현명한 선물을 의미한다.

Let's Read

크리스마스 전 날이었다. 짐이 곧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것이었다. 델라는 그들이 사는 작고 싼 아파트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짐이 집에 왔다.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까?” 델라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궁금해했다. 그저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의 머리는 매우 길었다. 지금은 사내아이의 머리카락만큼 짧아졌다. 짐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고 델라를 보았다.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얼어붙은 채 거기 서 있었다.

“여보, 짐, 그런 식으로 날 보지 마세요.” 델라는 그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요. 멋진 남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 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당신의 머리카락을 잘랐다고요?” 짐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다시 빨리 자라요.” 델라가 말했다.

짐은 테이블 위에 상자 하나를 던졌다. “걱정 마세요, 델라.” 그가 말했다. “심지어 당신이 머리카락이 없을 지라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소! 하지만 상자를 열면 왜 내가 충격을 받았는지 알게 될 거요.”

델라의 손가락이 상자를 열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다.

“오, 짐!” 그녀가 소리쳤다. “우리가 몇 달 전에 가게 유리창에서 보았던 빗을 내게 사 주었군요. 정말 예뻐요.”

빗은 델라의 긴 갈색 머리에 완벽하게 보였을 것이다. 갑자기 델라는 짧은 머리로는 그것을 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델라, 울지 마세요.” 짐이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의 머리카락은 빨리 자란다요.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요.”

델라는 코를 훌쩍였다. “오, 짐. 난 당신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어요. 자 여기 있어요.”

델라는 아름다운 백금 줄을 가져왔다. 그것은 짐의 시계줄이었다. 이 시계는 짐의 할아버지로부터 짐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짐에게까지 내려 온 것이었다. 그것은 짐의 가장 소중한 소지품이었다. 짐은 시계줄을 가져가더니 이상하게 웃었다.

“델라, 난 당신의 빛을 사려고 내 시계를 팔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서로 미소 지었다. 그 두 사람 모두 서로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소지품을 포기했던 것이다.

Unit 2 The Phantom of the Opera

Before You Read

프랑스 작가 가스통 르루는 1909년에 <오페라의 유령>을 썼다. 현대의 대중은 그의 작품을 토대로 한 오페라, 연극, 영화에 더 익숙해져 있다. 소설의 장면은 실제 파리 오페라 하우스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스통 르루는 이 건물에 매우 흥미가 있었고 자신의 소설을 위한 완벽한 배경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들은 오페라 가수, 그녀의 연인, 그리고 에릭이라는 불가사의한 남자이다. 에릭은 음악에 매우 재능이 있으나 그의 끔찍한 얼굴 탓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는 오페라 하우스의 아래에 숨게 되고 ‘오페라의 유령’처럼 살게 된다.

Let's Read

“브라보! 브라보!” 관객들은 크리스틴 다에의 훌륭한 공연에 환호했다. 그것은 크리스틴이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자신의 성공에 압도되어 그 젊고 아름다운 여배우는 기절했다.

관객석에 있었던 젊고 진실된 남자 라울은 크리스틴을 알아보았다. 그는 전에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천사같이 노래하는군.” 그가 생각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난 그녀와 사랑에 빠졌지. 그리고 난 여전히 그녀와 사랑에 빠졌어!”

그는 분장실로 달려갔고 의사는 그곳에서 크리스틴을 깨우려 노력 중이었다.

라울은 자신의 팔로 크리스틴을 잡았다.

“오.” 크리스틴이 신음 소리를 냈다. 그녀는 눈을 떴고 라울을 보았다.

“선생님,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녀가 말했다.

“아가씨, 난 당신의 스카프를 꺼내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어린 소년입니다.” 라울이 말했다. 그는 그들이 어렸을 적, 과거에 크리스틴을 만났었던 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크리스틴은 의사를 쳐다보고 다시 라울을 보았다.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라울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일어섰다. 크리스틴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가씨, 당신이 날 알아보지 못하니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소.”

“제가 좀 나아지면 다시 와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크리스틴이 대답했다.

“네, 가 주셔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제가 이 젊은 숙녀를 돌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난 지금 아프지 않아요.” 갑자기 크리스틴이 말했다. 그녀는 활기를 찾은 듯 보였다. “모두들 나가 주세요.

전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모두가 방을 나갔다. 라울은 문 밖에서 망설였는데 그 때, 그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크리스틴!” 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해야만 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크리스틴이 말했다. “난 당신만을 위해 노래한다고요.”

“매우 피곤한건가?”

“오, 오늘 밤 난 당신을 위해 심장이 터지도록 노래했고 난 지금 매우 지쳤어요.”

라울은 두 가지의 강한 감정을 느꼈다. 하나는 상처 입은 마음이었다. 그는 크리스틴을 사랑했다! 다른 감정은 혼란스러움이었다. 이상한 목소리는 누구의 것이었던 말인가? 그리고 그는 어떻게 크리스틴의 분장실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Unit 3 Les Misérables

Before You Read

위대한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1862년에 <레 미제라블>을 썼다. 그 제목은 영어로는 ‘비참한 사람들’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소설의 주인공인 장 발장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체포되었다. 그는 가난해서 자신의 여동생과 다른 친척들을 먹여 살릴 다른 방법이 없었다. 19년 뒤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장 발장을 보살피고 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했다. 이 친절함이 장 발장을 변화시켰다. 이 책은 가난과 부에 대한 생각과 법, 그리고 어떻게 나쁜 사람이 선량해지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Let's Read

“주교님! 주교님!” 마글루와 부인이 주교에게 뛰어가며 외쳤다. “은식기 바구니가 어딴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왜요?” 주교가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바구니를 그녀에게 주었다.

“오, 다행이군요.” 마글루와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잠깐만요! 바구니 안엔 아무것도 없어요! 은그릇은 어디 있죠?”

“아, 저도 모르겠네요.” 주교가 말했다.

“오, 어젯 밤 우리와 함께 머물렀던 그 사람.” 마글루와 부인이 말했다. “그가 우리의 은을 훔쳤군요!”

주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애초에 그 은그릇은 우리 것이었나요?”

“무슨 말씀이시죠? 주교님?” 마글루와 부인은 깜짝 놀랐다.

“제가 보기엔 우리가 그 은그릇을 잘못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예요. 그리고 그 남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바로 그때,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두 명의 경찰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 그들은 주교의 손님이었던 장 발장을 붙잡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주교님.” 경찰들 중의 한 명이 말했다. “저희는 주교님의 집에서 이 남자가 달려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 안에 이 은제품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는 당신들한테 그 은제품은 친절하고 나이 든 성직자가 자기한테 준 거라고 말했죠?” 주교가 말했다.

“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명백히 거짓말이었던 거죠.” 또 다른 경찰이 말했다.

“그것은 확실치 않아요. 그리고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주교가 말했다. “당신들은 실수를 했군요.”

“그 경우라면, 우리는 그를 놓아 주어야 하나요?” 그 경찰이 말했다.

“물론이죠.” 주교는 말했다.

“제가 풀려난다는 게 사실인가요?” 매우 놀란 발장이 물었다.

“내 친구여, 가기 전에 여기 당신의 훗대가 있소. 이것들을 가져가시오.” 주교가 말했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었던 은훗대 두 개를 발장에게 주었다. 발장의 팔다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주교는 그에게 가까이 몸을 숙였다.

“잊지 마세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주교가 말했다.

Unit 4 The Three Musketeers

Before You Read

총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총의 일종인 머스킷 총을 지닌 병사를 나타낸다. 총사들은 17~18세기에 프랑스 왕의 친위대이곤 했다. 제목이 〈삼총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험 소설의 주인공은 총사가 전혀 아니다. 주인공은 총사가 되길 원하는 청년이다. 그는 탐색 도중에 삼총사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친구가 된다. 알렉상드르 뒤마는 이 소설을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재미있는 모험소설로 썼다. 그것은 매우 인기가 있게 되었고 몇몇 영화와 연극으로도 각색되고 있다.

Let's Read

광! 달타냥은 여관의 방에서 나오던 남자와 정면으로 부딪쳤다.

“아야!” 그 남자는 소리쳤는데, 그는 아토스라는 이름의 총사였다. 그는 어깨에 부상을 입은 탓에 고통스러워 보였다.

“실례합니다.” 달타냥이 말했다. “제가 급해서요.” 그리고는 그는 아토스를 지나 달리려고 했다.

하지만 한 손이 그의 벨트를 붙잡고 그를 저지했다.

“자네는 ‘실례합니다. 제가 급해서요’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화가 난 총사가 물었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건 충분치 않아.”

부탁드립니다. 절 놓아 주세요.” 달타냥이 말했다. “맹세코 말씀 드리는데, 제가 무척 급합니다. 제 갈 길을 가게 해주세요.”

“난 꼭 자네에게 좋은 예절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야겠네!” 아토스가 말했다. “정오에 수도원 근처에서 나와 만나자. 우린 결투를 벌여야겠어.”

“좋아요, 그곳으로 가겠어요.” 달타냥은 문 밖으로 뛰어나가며 말했다.

밖으로 나가자 달타냥은 또 다른 총사의 망토 자락에 붙잡혔다. 이번엔 포르토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남자였다.

“어이!” 포르토스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부딪치는 걸 보니 자넨 틀림없이 정신이 없나보군.”

“실례합니다만 제가 지금 무척 급합니다. 전 제게서 물건을 훔쳐간 자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라고 달타냥이 말했다.

“그럼 자네는 달릴 때 늘 눈을 잊고 다니나?” 포르토스가 물었다.

“아뇨, 제 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전 볼 수 있죠.” 달타냥이 말했다.

“자네 나를 모욕하는 건가?” 포르토스가 소리쳤다. “자네에게 결투를 신청하겠네. 수도원 근처에서 나와 1시에 만나세.”

“아주 좋아요, 1시.” 거리로 뛰어 나가며 달타냥이 말했다. 그리고 나서 달타냥은 한 무리의 총사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한 명은 아라미스였다. 달타냥은 아라미스의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달타냥이 말했다. “손수건을 떨어뜨리셨군요.”

아라미스는 당황했다. 그 손수건은 그의 여자친구 것이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요.” 아라미스가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지는 걸 봤어요!” 달타냥이 말했다.”

“자네는 날 지금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건가?” 아라미스가 말했다. “수도원 근처에서 2시에 나와 만나세. 우리는 결투를 할 걸세.”

Unit 5 Dracula

Before You Read

브램 스토커는 흡혈귀를 창안해 내지 않았다. 그러나 1897년에 출간된 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포 소설인 <드라큘라>는 이 괴물들을 영국과 미국 두 나라의 폭넓은 독자들에게 소개시켰다. <셜록 홈즈>에 관한 탐정 소설의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경은 <드라큘라>를 읽고 나서 스토커에게 편지를 썼으며 스토커의 작품을 칭찬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스토커는 그 소설로 많은 돈을 벌지는 않았다. 그것은 20세기에 책에 바탕을 둔 영화가 나오고 난 뒤 더 유명해졌다. 2009년에 드라큘라를 주요 인물로 다뤄 제작된 217 편의 영화가 있다고 추산되었다.

Let's Read

1893년 5월 8일 조나단 하커의 일기에서

오늘 아침, 나는 면도를 하는 도중에 내 어깨에 닿는 손길을 느꼈다.

“안녕하십시오.” 그것은 드라큘라 백작이었다.

“아야!” 나는 베인 동시에 말했다.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군요.”

“날 용서하십시오.” 백작이 말했다. “당신을 겁 주려고 한 것은 아니었소.”

“베이고 말았네요.” 내가 말했다.

백작은 내 목의 피를 봤을 때 얼어붙었다. “아...” 그는 내 목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십자가상이 달린 내 목걸이에 닿자마자 그는 멈췄다. “저주스러운 물건이여!”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십자가상 말인가요?” 내가 물었다.

“들어봐요. 당신은 베이는 것에 대해서 꼭 조심해야만 하오. 이 나라에서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오.” 백작이 말했다.

“거울에서 당신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했다.

백작은 내 거울을 보았다. 나는 세면대 위에 그것을 걸어두었다. 그 안을 들여다보자 나는 내 옆에 서 있는 백작을 볼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기분 나쁜 물건이군요.” 그가 말했다. “없애버립시다!”

그는 그것을 잡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나는 그것이 아래의 땅에 부딪치면서 수많은 조각으로 박살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난 면도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물었다.

“미안하군, 나의 친구.” 백작이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소.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미안하오.”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난 그저 당신이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법률 문제만 돕기 위해 온 겁니다.”

“우린 트란실바니아에 있소. 그리고 트란실바니아는 영국이 아니지.” 백작이 말했다. “우리의 방식은 당신네들의 방식과는 다르니 아마도 당신에게는 이상한 점들이 많겠지.”

“당신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아 누군가를 언짢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내가 말했다.

“문이 잠긴 곳을 제외하고는 성 안의 어떤 곳이든 가도 된다고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뒤에는 밖에 나가지 마시오.”

Unit 6 Don Quixote

Before You Read

미구엘 데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는 많은 이들에게 이제껏 씌여진 가장 중요한 소설이라고 여겨진다. 사실 그것은 최근에 노벨 협회에 의해 역대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명명되었다. 왜 이 작품이 그렇게 중요한가? 전문가들은 대개 그것이 첫 번째 현대소설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작가가 주인공을 좀 더 복잡하고 인간적으로 보여 준 것은 이 책이 처음이었다. 전에 이야기들은 보통 악을 물리치는 명백히 선한 등장인물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돈 키호테>에서 우리는 인간 성격과 사회의 많은 측면을 보여주는 복잡한 인물을 찾을 수 있다.

Let's Read

라 만차의 작은 스페인 마을에 돈 알론소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큰 농장을 소유했지만 그 일을 하지는 않았다. 알론소가 기사들에 대한 책들을 읽는 동안 그의 하인들이 일을 했다.

어느 날, 그의 이웃인 산초 판사가 들렀다.

“알론소 씨, 당신 집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산초가 물었다.

“아, 어서 오게, 산초!” 알론소가 말했다. “들어오게나,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보여주지!”

알론소는 산초를 그의 작업실에 초대했다.

“오래된 갑옷 한 벌이군요.” 산초가 말했다.

“나는 그것을 나에게 맞도록 더 크게 만들고 있다네.” 알론소가 말했다. “나는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자네는 나를 돈키호테 데 라 만차라고 불러도 좋네!”

산초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전 왕들만이 사람들을 기사로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은 기사가 될 수 있는 거야.” 돈 키호테가 말했다. “우린 함께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게 될 걸세.”

“함께요?” 산초가 물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가난한 농부일 뿐인데요.”

“말도 안 돼!” 돈 키호테는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터 자네는 내 종자가 될 것이네.”

“하지만 제 아내와 딸은 어떻게 하고요?” 산초가 물었다.

“그들은 자네가 얻게 되는 보물로 행복해지게 될 거야.” 돈 키호테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자네를, 자네 소유의 섬의 군주로 만들겠네.”

산초는 관심이 생겼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의 종자가 되겠습니다. 기사 나오리!” 그가 말했다.

“자네의 말을 가져오고 마을 앞에서 나와 만나자꾸나.”

“저는 말이 없는데요.” 산초가 말했다. “당나귀만 있습니다.”

잠시 뒤에, 그들은 마을 밖 길 위에서 만났다.

“오늘 우린 운이 좋구나.” 돈 키호테가 말했다. “봐, 서른 명 이상의 무시무시하게 큰 거인들이 있잖은가.”

“무슨 거인들이요?” 산초가 말했다.

“저기 자네가 보고 있는 그들말야. 긴 팔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의 몇몇은 10미터 이상이구나.”

“하지만 저건 풍차들인데요.” 산초가 말했다. “그들의 ‘팔’은 맷돌을 돌아가게 해서 밀을 가는 날개입니다.”

바로 그 때, 강한 바람이 불었다. 풍차의 날개들은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다. “봐. 그들이 우릴 봤어!” 돈 키호테는 소리쳤다. “전진하라! 전투와 영광을 향해!”

Unit 7 The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Before You Read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 경에 의해 창작된 유명한 허구의 탐정이다. 도일은 <셜록 홈즈의 모험>을 포함한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썼다. 도일은 현장의 단서들을 그저 조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 낼 수 있는 매우 똑똑한 탐정에 대한 발상을 소개했다. 셜록의 조수, 왓슨 박사는 특별히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그 탐정을 돕고 각 사건에 대한 메모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셜록 홈즈의 좋은 친구라는 점이다. 현대에서도 셜록 홈즈와 왓슨 박사의 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다.

Let's Read

왓슨 박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보라색 가운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는 셜록 홈즈를 찾아냈다. 소파 옆에는 의자가 있었다. 그 의자에는 매우 오래된 검은색 모자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마모로 인한 구멍들이 약간 있었다.

“자네 이 오래된 모자를 살피고 있군.” 왓슨이 말했다. “내가 자네를 방해한 게 아니길 바라네.”

“전혀 아닐세.” 홈즈가 말했다. “여기에 친구가 오다니 기쁜걸. 이제 난 자네와 함께 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논의할 수 있겠군.”

“내 생각에, 비록 평범하게 보일지라도, 이 모자는 그것과 연관된 치명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지. 그런 어떤 범죄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자네를 안내해 줄 단서로군.” 왓슨이 말했다.

홉즈는 웃었다. “아니, 아니야! 범죄가 아니라고. 그저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이하고 가벼운 사건일 뿐이야.”

홉즈는 설명했다. “한 경찰관이 거위를 들고 가는 키 큰 남자를 보았네. 그는 젊은 도둑떼에게 습격을 받았지. 그 키 큰 남자는 거위와 그의 모자를 떨어뜨리고 공무니를 내뺐네. 그 경찰관은 그 도둑들을 쫓아버렸고 말야. 이제 그는 그 모자의 주인에게 거위를 돌려주고 싶어한다네.”

“그래서 자네는 누가 그 모자의 주인인지 밝혀내려 하고 있다는 건가?” 왓슨이 물었다.

“바로 그거지.” 홉즈가 말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자네가 그렇게 하겠다는건가?”

“난 이미 그 남자가 매우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 홉즈가 말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지?”

“아주 쉽고 간단해, 여보게 왓슨.” 홉즈가 말했다. “모자의 크기를 봐. 그건 매우 크다네. 그렇게 큰 두뇌를 가진 남자는 틀림없이 똑똑할거야.”

“그 밖에 무엇을 알게 되었나?”

“그는 3년 전에는 부유했지만 그 이후로 불운한 꼴을 당했네.”

“홉즈! 자네가 그걸 알 수 있을 리가 없어!”

“안 쪽의 안감을 보게나. 고급의 실크로 만들어졌어. 이 모자는 3년 전에 유행되었네. 그 때, 그는 그런 모자를 살 형편이 되었겠지. 하지만 그 때 이후로 다른 모자는 사지 않았네.”

“자네의 추리는 늘 그렇듯 매우 타당한 것 같군.” 왓슨이 말했다.

Unit 8 Gulliver's Travels

Before You Read

조나단 스위프트는 1726년에 농담 삼아 〈걸리버 여행기〉를 썼다. 그는 1700년대 초기에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조롱하고 싶었다. 그는 또한 당시에 인기있던 여행 소설을 비웃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 이상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기이한 등장인물들이 많은 이유다. 스위프트는 낯설고 멀리 떨어진 땅으로 떠난 걸리버의 여행을 매우 웃기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묘사했다. 그 결과, 책은 즉각 매우 큰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로도 인기 작품으로 남아있다. 요즘 그것은 영문학의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된다.

Let's Read

어느 날, 왕은 걸리버에게 블레퍼스큐 섬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곳에 곧 전쟁이 있을 걸세.” 왕이 말했다. “그들은 릴리퍼트를 침략하기 위해 그들의 배를 준비하고 있지.”

“그들은 왜 침략하고 싶어하죠? 걸리버가 물었다.

“아주 예전에 블레퍼스큐 사람들은 릴리퍼트 왕국의 일부였지.” 왕이 말했다. “그 당시엔 우리 모두가 달걀의 큰 모서리를 깎았어.”

“전 달걀의 작은 모서리를 깨는데요.” 걸리버가 말했다. “물론 집에 있을 때 말이에요.” 그가 덧붙여 말했다. “여기선 제가 먹을 만큼 충분히 큰 달걀이 없어요.”

“그거 잘됐군.” 왕이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야. 자네가 보다시피, 어느 날 나의 할아버지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는 달걀을 먹다가 베었지. 그는 그 때 모두에게 자신들의 달걀을 작은 모서리로 깨라고 명령했대네.”

“모두가 왕의 명령을 따랐나요?” 걸리버가 물었다.

“아니.” 왕이 말했다. “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들은 블레퍼스큐 섬에서 살도록 보내졌어.”

“달걀을 한 쪽으로 깨느냐, 그 반대 쪽으로 깨느냐는 전쟁을 일으킬 이유로 충분치 않아요.” 걸리버가 말했다.

왕은 걸리버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건 우리 소인국 사람들에게겐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가 말했다. “양 쪽의 수천 명이 이 문제를 놓고 죽도록 싸워왔네! 이것이 자네가 우리를 도와주어야만 하는 이유야.”

“제 몸의 크기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걸리버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을 도우면 좋겠네요.”

“그들의 배를 훔쳐오게.” 왕이 명령했다. “배가 없이는 그들은 침략할 수 없어.”

걸리버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다. “당신들이 내게 줄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은 양의 밧줄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금속 창을 가져다 주세요.”

“그것들로 무엇을 할 건가?”

“창을 구부려 갈고리를 만들거예요.” 걸리버가 말했다. “그런 다음 그 갈고리에 밧줄을 묶을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 각각의 배를 걸어서 모든 배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Unit 9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Before You Read

철 베른은 모험 소설을 쓰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다. <지저 여행>과 <해저 2만리> 같은 작품 때문에 그는 때때로 공상 과학 소설의 아버지로 여겨진다. 하지만 <80일간의 세계일주>는 공상 과학 소설의 초기 작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래 1873년에 불어로 쓰여진 이 소설은 곧바로 영어로 번역되었고 매우 인기있는 책이 되었다. 사실 1979년 이후 철 베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번역작이 많은 작가이다.

Let's Read

1872년 어느날 밤, 필리어스 포그는 그의 개인 클럽에서 세 명의 다른 클럽 회원들과 함께 카드를 치고 있

었다. 그들은 기사인 앤드류 스튜어트, 은행원인 새뮤얼 폴랜틴, 맥주 공장의 경영자인 토마스 플래너건이었다. 그들 모두는 부유했고 존경할 만한 런던의 신사들이었다.

“오늘 은행 강도에 대한 이야기 읽었나?” 폴랜틴이 물었다.

“난 그 도둑이 탈출할 좋은 기회가 있다고 믿네.” 스튜어트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갈 수 있지?” 폴랜틴이 물었다. “어떤 나라도 그에게 안전하지 않잖아.”

“오, 그야 모르지.” 플래너건이 대답했다. “세계는 충분히 크니까 말야.”

“한 땀 그랬지.” 포그가 말했다.

“한 때”라니 무슨 뜻이야?” 스튜어트가 물었다. “세계가 작아졌다는 건가?”

“물론이야.” 폴랜틴이 말했다. “난 포그 씨에게 동의하네. 이제 100년 전보다 인간은 세계를 10배나 더 빨리 돌 수 있기 때문에 세계는 더 작아졌다네.”

“그렇다면 인간은 얼마나 빨리 세계를 돌 수 있다고 생각하나?” 스튜어트가 물었다.

“80일.” 포그가 말했다.

“그래, 80일.” 폴랜틴이 동의했다. “봐, 여기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만든 추정치가 있네.” 그는 짧은 뉴스 기사를 가리켰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날씨, 난파, 철로 사고 등등을 고려하지 않았어.” 스튜어트가 말했다.

“모든 것이 포함된걸세.” 포그가 말했다.

“난 자네가 80일 만에 그 일을 해내는 걸 보고 싶군.” 스튜어트가 말했다.

“그건 자네한테 달렸지.” 포그가 대답했다. “같이 가겠나?”

스튜어트는 얼굴이 붉게 변했다. “맙소사, 싫네!”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그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4,000 파운드를 걸겠네.”

“그와 반대로, 그건 꽤 가능한 일이야.” 포그가 말했다.

“그러면 나의 내기를 받아들이게!” 스튜어트가 말했다.

“아주 좋아.” 포그가 말했다. “내가 80일 안에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는 자네의 내기를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난 20,000 파운드로 내기 돈을 올리겠네.”

“자네 농담하는거지!” 스튜어트가 말했다.

“진실된 영국남자는 내기를 할 때 농담을 하지 않아.” 포그가 대답했다.

스튜어트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아주 좋아, 받아들이겠네. 언제 떠날텐가?”

“오늘 밤.” 포그가 말했다.

Unit 10 The Moonstone

Before You Read

1868년에 쓰여진 <월장석>은 흔히 영문학 최초의 장편 추리 소설로 여겨진다. <월장석>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몇몇 기법들을 특징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모든 단서들을 조합하는 전문 직종의 수사관에 대한 발상은 <월장석>의 한 특징이다. 또 다른 것은 가장 범위를 저지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실제 범인 등장인물로 만드는 기법이다. 이것들을 비롯한 몇 가지 다른 기법들은 월키 콜린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Let's Read

늦은 때였고 레이첼의 생일 손님들은 모두 떠났다. 레이첼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사촌 고드프리는 거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딸아.” 벨린더 여사가 말했다. “오늘 밤 네 다이아몬드를 어디다 둘 거니?”

벨린더 여사는 레이첼이 드레스에 착용한 보석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 유명한 보석은 그녀의 삼촌인 존 핸캐슬 대령이 레이첼에게 남겨준 것이다. 그는 그가 군 생활을 했던 인도에서 그것을 훔쳐왔다.

“잘 모르겠어요.” 레이첼이 말했다. “전 그것을 제 화장대 위에 두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빛 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 빛이 절 성가시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소중한 보석을 그런 트인 장소에 남겨 두려고 했어?” 고드프리가 말했다.

“세상에! 사촌오빠!” 레이첼이 소리쳤다. “여기가 호텔이야? 이 집에 도둑들이 있다는 거야?”

“오늘 밤 내가 너를 위해 이 다이아몬드를 지키는 게 어떻겠니?” 벨린더 여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건 내 다이아몬드라고요!” 레이첼이 외쳤다. 그녀의 열 여덟번째 생일이었지만 그녀는 어린아이 같은 소리를 했다. “난 이걸 가까이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 벨린더 여사가 말했다. 그녀는 만족한 것 처럼 들리지 않았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내 방으로 오렴. 레이첼. 내가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게 있을게다.”

그런 다음 레이첼은 고드프리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큰 외침이 들렸다.

“아버지!” 하녀인 페넬로프가 집사인 베테리지 씨에게 소리쳤다. “위층으로 올라오세요! 다이아몬드가 사라졌어요!”

“너 제 정신이니?” 베테리지가 물었다.

“사라졌어요.” 페넬로프가 말했다. “사라졌고 아무도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와서 보세요.”

페넬로프는 자기 아버지의 팔을 잡아 그를 레이첼의 방으로 이끌었다. 그 젊은 여자는 침대 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 어젯밤 레이첼 아가씨가 다이아몬드를 서랍에 넣는 것을 봤어요.” 페넬로프가 말했다.

베테리지는 서랍을 보았다. 그것은 비어있었다.

“아가씨, 이게 사실입니까?” 베틀리지가 물었다.

레이첼은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창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허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다이아몬드가 사라졌어요!”

Unit 11 Macbeth

Before You Read

〈맥베스〉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그 자신의 강점과 약점으로 분열된 등장인물을 보여준다. 스코틀랜드의 장군 맥베스는 스코틀랜드가 바이킹족과 영국의 두 나라 모두에게 위협을 받던 시기에 살고 있다. 맥베스는 전장에서 강하고 용감한 전사이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겠다는 그의 야망은 그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끔찍한 행동을 하게 한다. 〈맥베스〉는 한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멈추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비극이다.

Let's Read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스코틀랜드의 어느 날, 세 마녀가 큰 검은 가마솥을 짓고 있었다. “두 배로, 두 배로, 고통과 고난을.” 그들은 구호를 외쳤다. “불길아 타 올라라, 가마솥아 끓어라.”

“난 영원의 눈과 개구리의 발톱을 넣었지.” 첫 번째 마녀가 말했다.

“난 박쥐의 털과 개의 혀를 넣었지.” 두 번째 마녀가 말했다.

세 번째 마녀는 자신의 손을 봤다. “내 엄지 손가락의 고통으로 난 사악한 것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알지.”

맥베스와 그의 하인 뱅코우는 그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은 위대한 전투에서 방금 승리했고 포레스에 있는 그들의 왕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다.

“오, 이 사람들은 뭐죠?” 뱅코우가 물었다. “이 땅의 사람들인가? 그들은 늙은 여자처럼 생겼지만 남자처럼 수염을 가지고 있구나!”

“말을 할 수 있다면 해 보거라.” 맥베스가 명령을 내렸다. “그대들은 무엇인가?”

“맥베스 만세!” 첫 번째 마녀가 말했다. “글래미스의 영주여!”

“맥베스 만세!” 두 번째 마녀가 말했다. “카우더의 영주여!”

“맥베스 만세!” 세 번째 마녀가 말했다. “미래의 왕이시여!”

“잠깐, 이상한 당신네들.” 맥베스가 말했다. “내가 글래미스의 영주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카우더의 영주가 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여전히 살아있소. 그리고 내가 왕이 된다고? 그건 가능하지 않소!”

세 마녀는 그들의 가마솥을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저게 진짜였나요, 아니면 우리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뱅코우가 물었다.

바로 그 때 왕의 시종들인 로스와 앵거스가 다가왔다.

“환영합니다. 맥베스.” 로스가 말했다. “왕께선 당신의 승리에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왕이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여기로 보냈습니다.” 앵거스가 말했다.

“그리고 왕은 당신이 이제 카우더의 영주라는 소식을 전할 영광을 제게 주셨습니다!” 로스가 말했다.

“뭐라고? 이게 정말 사실인가?” 매우 놀란 벅코우가 물었다.

“하지만 카우더의 영주는 아직 살아있는데.” 맥베스가 말했다.

“그는 반역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앵거스가 말했다. “그는 노르웨이족의 침략을 도왔습니다. 왕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 마녀들의 예언이 이루어졌군요.” 벅코우가 속삭였다.

Unit 12 Orpheus and Eurydice

Before You Read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이다. 신화는 고대의 사람들이나 초능력을 가진 신들의 삶을 묘사하는 전통의 이야기이다. 많은 그리스 신화들처럼, 오르페우스의 이야기가 지어내진 것인지 혹은 실제로 실존인물에 토대를 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오르페우스라는 이름의 그리스 음악가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을 것이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수 년에 걸쳐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을 것이다. 되풀이해서 전해진 여느 이야기처럼 그것이 결과적으로 환상적인 이야기가 될 때까지 세부 사항들은 바뀐다.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더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 신화 중 하나이다.

Let's Read

오르페우스는 고대 그리스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음악가였다. 그는 에우리디케와 행복하게 결혼했다. 그들의 행복은 독사가 에우리케를 물어 그녀가 죽자 짧게 끝났다. 슬픔으로 가득 찬 오르페우스는 그 자신에게 약속한다. “내 아름다운 아내를 되찾기 위해 저승 세계를 여행할 거야.”

스틱스 강에서 오르페우스는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 세계로 실어나르는 뱀사공을 만난다.

“산 사람은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뱀사공이 말했다.

“제 음악을 듣고 절 지나가게 해 주세요.” 오르페우스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류트를 연주했고 음악은 뱀사공을 매료시켰다.

“당신은 지나가도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받아 스틱스 강을 건너게 한 것이 나였다는 것을 나의 왕, 하데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하데스의 저승 왕국을 통해 여행했다. 그가 가는 곳 마다 고통받은 영혼들이 그의 음악으로 행복해졌다.

그러나 하데스는 산 사람이 그의 왕국에 들어왔다는 것에 화가 났다.

“왜 산 사람인 네가 내 왕국에 있는가?” 하데스가 고함을 쳤다.

“부디, 죽음의 신이시여.” 오르페우스가 말했다. “나의 아름다운 아내, 에우리디케는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젊고 우리 앞에는 많은 세월이 있었어요.”

“삶과 죽음은 공평하지 않다.” 하데스가 말했다. “매일 젊은이들이 죽고 그들의 영혼은 여기 내 왕국으로 온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연주를 하게 해 주세요, 하데스 왕이여.” 오르페우스가 말했다. “만일 제 음악이 당신을 기쁘게 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오르페우스는 이제껏 연주하던 것 중 최고로 연주했다. 어두운 저승 세계에서 그에게 나온 한 줄기 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그의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잊었다. 하데스 그 자신조차 그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액체의 철로 된 눈물이 그의 볼에 흘러 내렸다.

“훌륭하군, 인간이여.” 하데스가 말했다. “그대의 음악은 나를 감동시켰어. 나는 그대의 아내가 자네를 따라 다시 지상세계로 가는 것을 허락하겠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에우리디케를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하겠습니다.” 오르페우스가 울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자네는 그녀가 햇빛에 도달할 때까지 그녀를 돌아봐서는 안 돼.”